



# numbers

vol. 249

##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의식 기독교 청소년이 학생 예배에 기대하는 것, ‘설교’보다 ‘찬양/친구’!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가족 관계 만족도
- ② 동성 가족에 관한 인식

2024. 7. 2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기독교 청소년이 학생 예배에 기대하는 것, '설교'보다 '찬양/친구'!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함께 또다시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다. 방학을 맞이하여 학업을 보충하려는 학생들은 수련회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고등학생의 개신교인 비율은 14%로 성인(17%)보다 낮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0%에 불과하다.(넘버즈 224호)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기독교 청소년의 수는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최근 교회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의식을 살펴보고, 예배, 교제 등 전반적인 교회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독교 청소년들의 하루 중 신앙생활에 할애하는 비중이 5분도 채 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나 되었으며, '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절반에 못미치는 43%에 불과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 수준을 나타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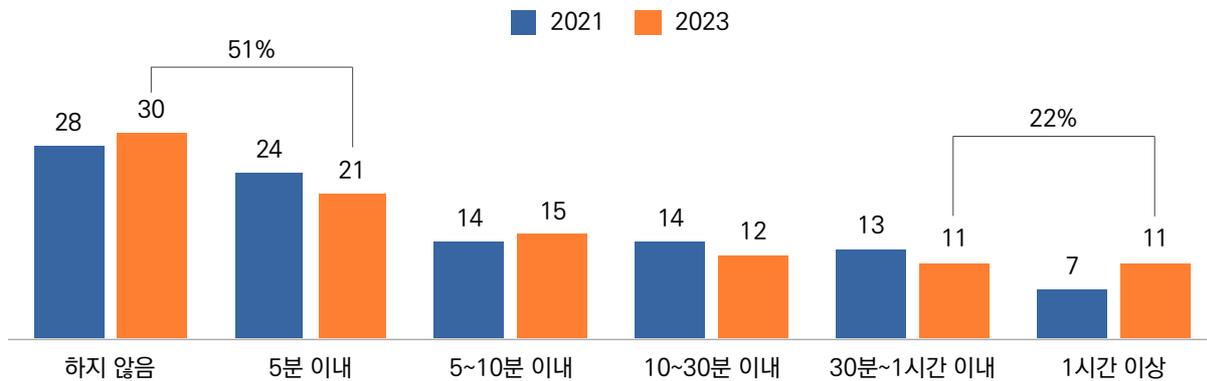
# 01

## [신앙생활과 의식]

### 기독교 청소년 절반, 하루에 5분도 채 신앙생활 하지 않아

- 기독교 청소년의 하루 중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하루 중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고, '5분 이내' 21%, '5~10분 이내' 15% 등의 순이었다. '하지 않음'과 '5분 이내'를 합하면 51%로 절반 정도가 하루에 5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셈이다.
- 반면, 30분 이상 신앙생활 하는 청소년은 5명 중 1명 이상(22%)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코로나로 대면 예배 등에 제약이 컸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1시간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기독교 청소년은 소폭 상승해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하루 중 신앙생활 정도 (교회 출석 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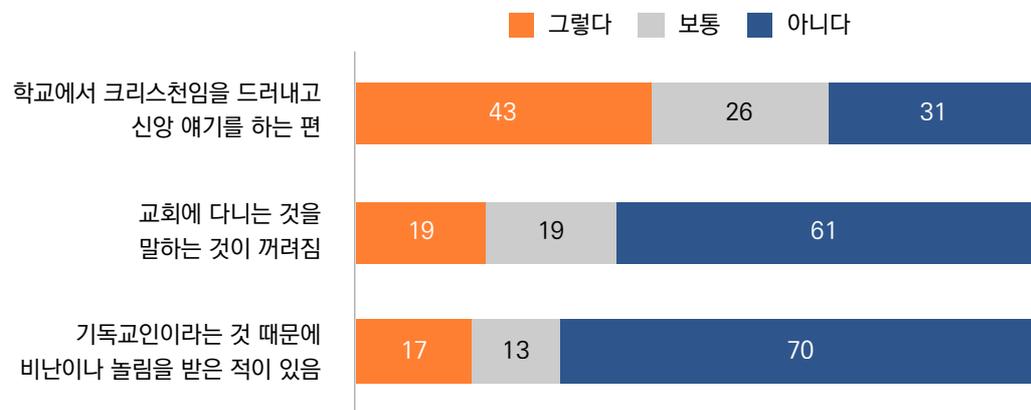


※출처 : 2021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21.04.08.-04.23.)  
 2023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 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기독교 청소년, 절반도 안 돼!

- 기독교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3%로 절반에 못 미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꺼려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이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음' 비율이 각각 19%, 17%였다.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에 떳떳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학교 문화권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학교에서의 크리스천 정체성\* (교회 출석 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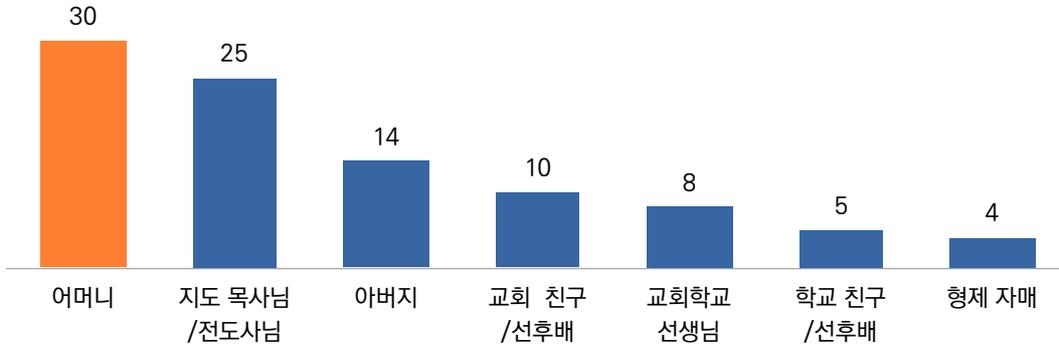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5점 척도

## 교회에서 청소년 신앙의 가장 큰 영향자, 교회 목회자보다 어머니!

- 교회에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은 결과, '어머니(30%)'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지도 목회자/사역자(25%)', '아버지(14%)' 등의 순이었다. 설문 문항에 '교회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목회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을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청소년 신앙에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교회에서 신앙생활 영향자 (교회 출석 중고생,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Note)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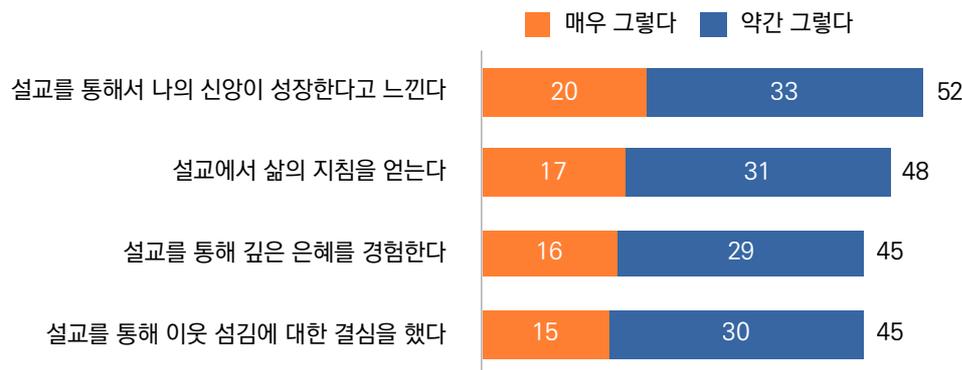
## 02

### [예배와 설교 영향력]

## 기독교 청소년 절반, 설교 통해 신앙이 성장함을 경험!

- 학생들에게 설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해 본 결과, 기독교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설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느끼고(52%)', '삶의 지침을 얻는다(48%)'고 응답했다. 또, 설교를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웃 섬김에 대한 결심을 했다'는 비율은 각각 45%로 나타났다.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니 각 항목별 15~20% 정도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 가량의 학생이 설교를 통해 성장과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림] 설교의 역할\* (교회 출석 중고생,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5점 척도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 예배와 설교 통해 삶의 변화 다짐

- 예배와 설교를 통해 기독교 청소년들이 삶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는지 '자주 있다' 비율로 확인해 보았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28%)',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삶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성찰한 적이 있다(27%)'에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가 '자주 그렇다'고 응답했다.
- 한편 '낙심했을 때 설교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받은 적이 있다'는 21%, '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주중에 기억하며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는 16%에 그쳤다.
- 대체로 설교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학생 10명 중 2~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설교의 영향력 (교회 출석 중고생, '자주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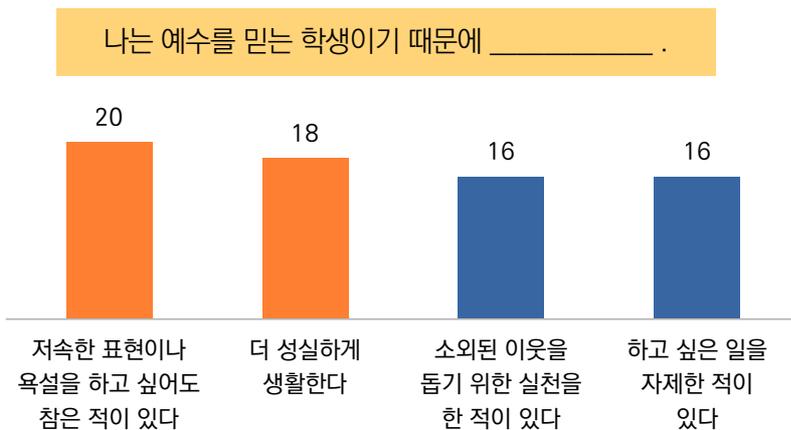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4점 척도

##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2명 정도만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실천

- 앞서 '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에 '자주 그렇다'는 학생이 16%였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지 다양한 보기를 제시하고 '자주 있다'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 '저속한 표현이나 욕설을 참는다' 20%, '더 성실하게 생활한다' 18% 등 10명 중 2명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림]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실천 (교회 출석 중고생, '자주 있다' 비율\*,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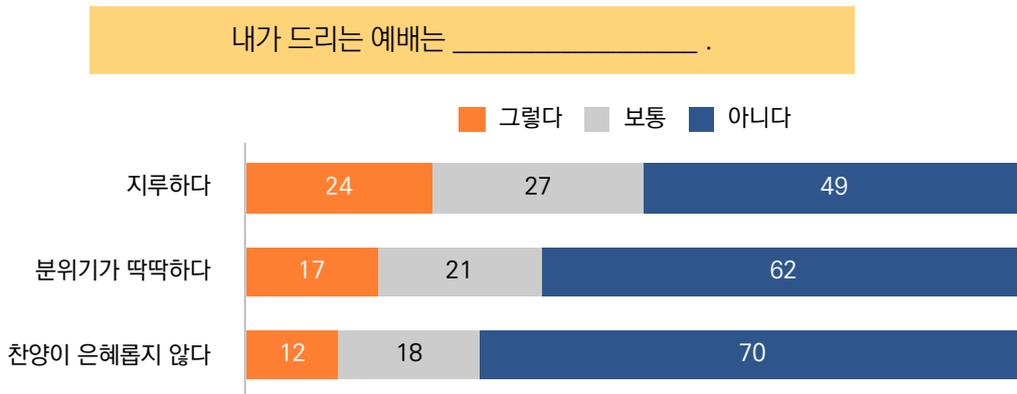
# 03

## [예배와 교제]

### 학생 예배 '지루하다', 4명 중 1명꼴!

- 예배 분위기에 대한 기독교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다. 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반(49%)에 불과했고, '보통' 27%, '지루하다' 24%로 기독교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는 예배를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에는 17%가 '그렇다', 6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찬양이 은혜롭지 않다(12%)'보다는 '은혜롭다(70%)'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 전반적으로 예배에서 찬양과 예배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지루하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으로 보아 설교 또는 전반적인 예배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학생 예배에 대한 인식\* (교회 출석 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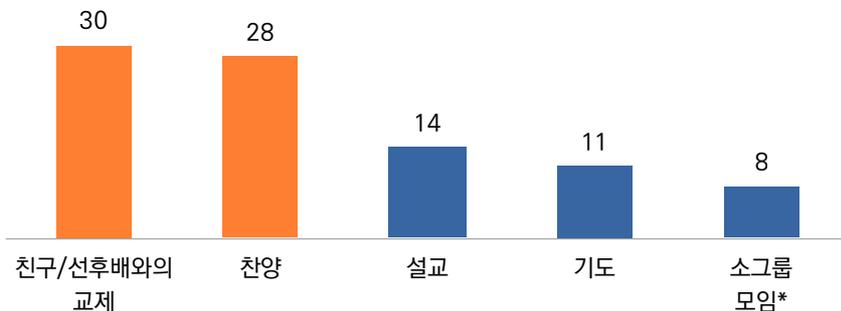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5점 척도

## 기독교 청소년이 학생 예배에 기대하는 것, 설교보다 '찬양/친구'!

-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친구/선후배와의 교제(30%)', '찬양(2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설교(14%)', '기도(11%)' 등의 순이었다. 설교와 기도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제, 찬양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중고생,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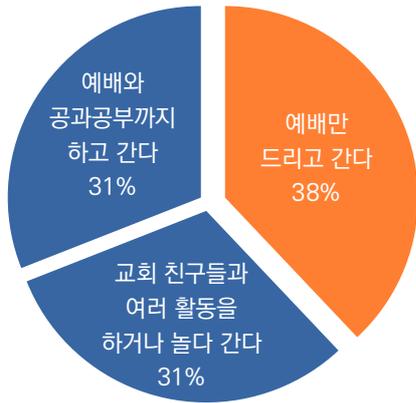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공과공부 포함

## 학생 예배만 드리고 공과공부 하지 않고 가는 학생, 38%!

- 교회 중고등부 예배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회에서 예배 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예배만 드리고 간다' 38%, '예배와 공과공부까지 하고 간다' 31%, '교회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거나 놀다 간다' 31%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예배 후 아무 활동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으로 '친구들과의 교제'가 높았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배 외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소그룹 활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후 활동 (교회 출석 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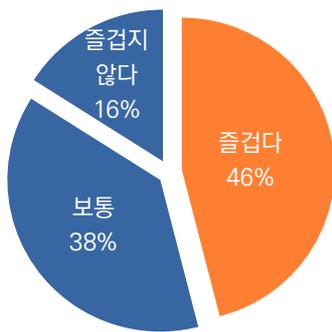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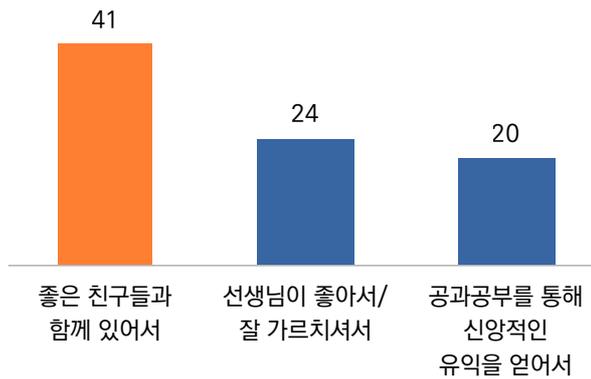
## 공과공부가 즐거운 이유, 신앙적 유익보다는 친구!

- 이번에는 공과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공과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절반 가까이(46%)가 '즐겁다'고 응답했다. 공과공부가 즐거운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가 41%로 가장 높았다. 이 시기는 '신앙 공부'보다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큰 시기인 것 같다.

[그림] 공과공부의 즐거움 여부\* (공과공부하는 중고생)



[그림] 공과공부가 즐거운 이유 (공과공부가 즐거운 중고생,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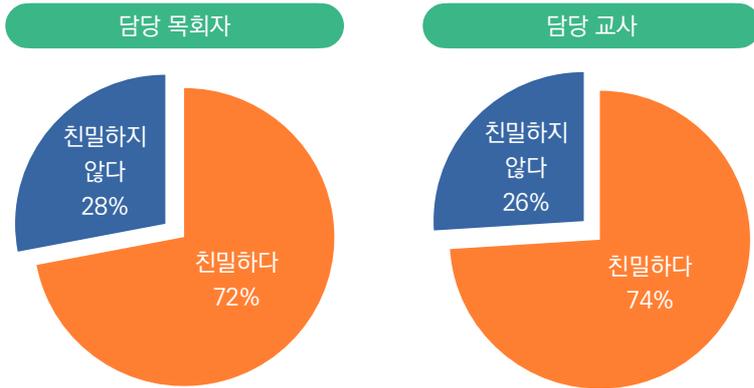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5점 척도

##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담당 목회자와 친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교회 담당 목회자, 담당 교사와 각각 어느 정도 친밀한지를 물었다. 담당 목회자와 친밀한 경우는 72%, 담당 교사와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 반대로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은 학생은 28%, 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학생은 26%로 나타났다. 대체로 10명 중 3명 가까이 되는데 중고등부 사역에서 이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목회자/교사 간 친밀감이 있어야 예배 참여에도 적극적일 수 있고,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담당 목회자/교사와의 친밀도\* (청소년 예배 드리는 중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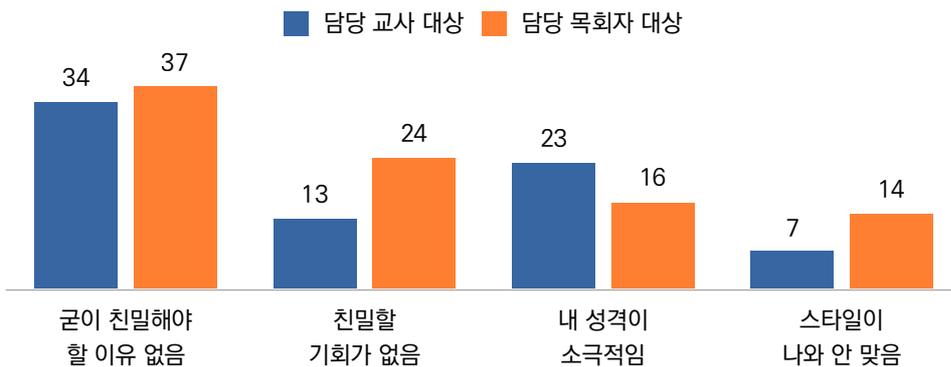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4점 척도

## 담당 목회자/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이유, '굳이 친해야 할 이유 없어서'!

- 담당 목회자 또는 교사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각각 그 이유를 묻은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모두 '굳이 친밀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로 나타났다. 담당 목회자, 교사와 친밀하지도 않고 친밀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일부 학생들과 접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담당 목회자/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이유 (담당 목회자/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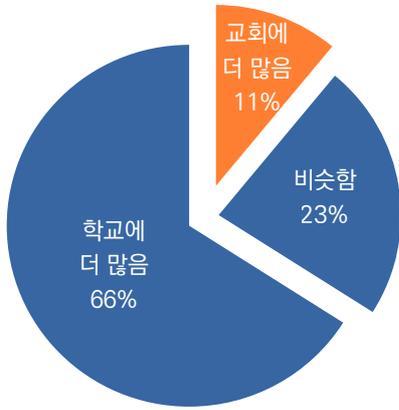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교회 친구, 학교보다 훨씬 적어!

-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교회 내 친한 친구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학생의 비밀이나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교회와 학교 가운데 어디에 더 있는지 묻은 결과, '교회(11%)' 보다는 '학교(66%)'에 훨씬 더 많았다.

[그림] 친한 친구 분포: 교회 vs 학교 (교회 출석 중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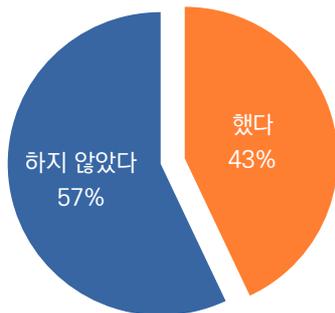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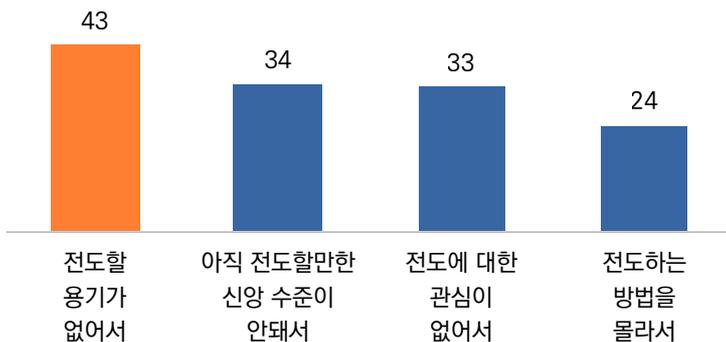
## 전도하지 않는 이유, '용기가 없어서'!

- 최근 1년간 전도를 시도한 경험(교회에 나온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10명 중 4명가량인 43%만 '했다'고 응답했고,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57%였다. 이들에게 전도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최근 1년간 전도 시도 여부 (교회 출석 중고생)



[그림] 전도하지 않은 이유 (최근 1년간 전도 안 한 학생, 1+2순위, 상위 4위,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2024.01.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15.-01.11.)

## 이번호 요약

### 1. 설교 통해 신앙 성장과 삶의 변화 이루는 학생, 10명 중 2~3명!

- '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설교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 20%, '설교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 있다' 28%, '설교에서 깨달은 내용 중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16%로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의 신앙이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체로 10명 중 2-3명 정도이다.

### 2. 기독교 청소년이 중고등부에 기대하는 것, '예배'보다 '찬양/친구'!

- 중고등부 예배가 '지루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은 49%, '공과공부가 즐겁다'는 학생은 46%로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
- 중고등부 예배와 활동에 기대하는 것으로 '친구와의 교제(30%)'와 '찬양(28%)'이 '설교(14%)'보다 훨씬 더 높았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밌 제너레이션 (주경훈 목사,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X 한국교회 트렌드 2024)
- ▶ [기사] 새벽 3시 자는 청소년에 아침예배?...교회로 이끌려면 '이렇게' (국민일보)
- ▶ [기사] "앞으로 6년, 교회학교와 청소년 사역의 골든타임" (기독일보)

## 관련 성경 구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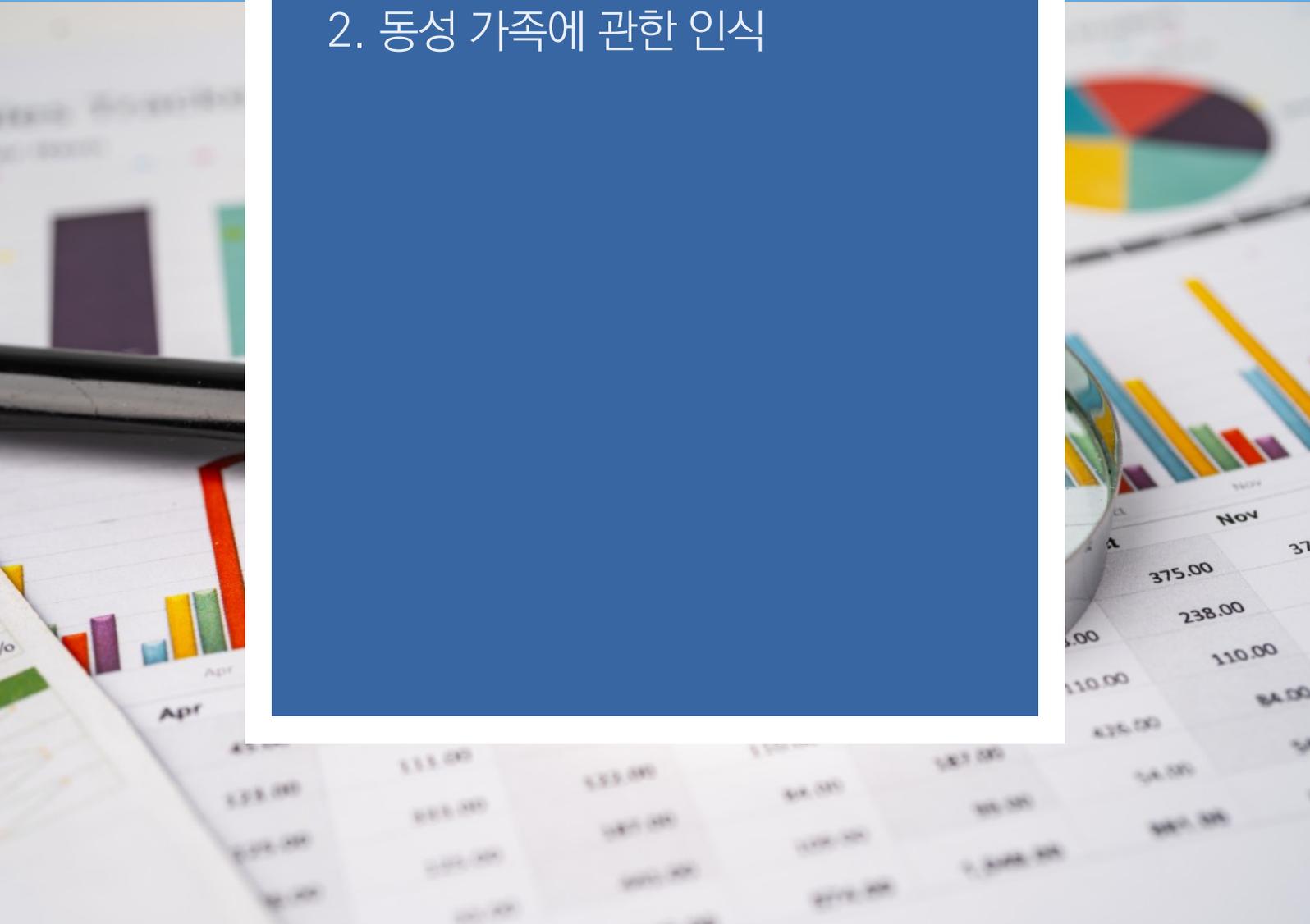
##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청소년의 교회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재미'와 '친구'이다. 기독교 청소년이 기대하는 것이 예배 요소보다 '친구와의 교제'라는 점은 교회가 충족해주기 어려운 재미를 채워줄 수 있는 열쇠이다.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가 예배 후 남아서 교회 친구들과 놀다 간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 친화적인 학생들이 중심인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친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서만 친한 친구 한두 명만 교회에 존재한다면 그 학생은 교회에 애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Top down 방식이 아닌 청소년에 의한 사역이 될 때 개교회만의 청소년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교회학교 부흥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설교가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을 키우거나 삶의 변화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설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터치하고 전달 방법에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사역은 무엇보다 목회자의 헌신과 열정이 결정적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가족 관계 만족도
2. 동성 가족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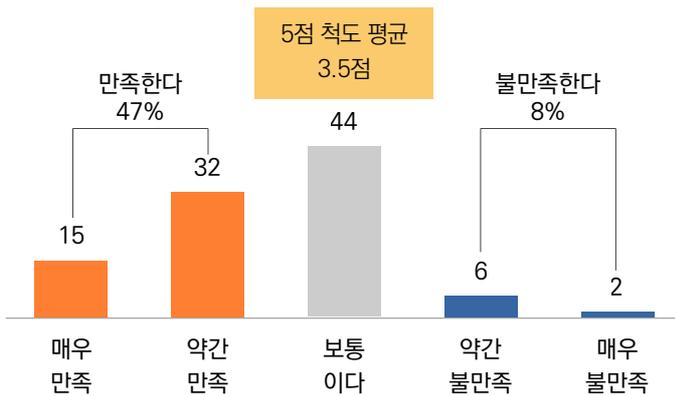




## [가족 관계 만족도] 가족 관계에 만족하는 국민, 절반도 안 돼!

- 한국인은 가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2024 가족인식조사’(한국리서치)를 통해 알아본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절반 가까이인 4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했고 ‘보통’은 44%, ‘불만족한다’는 8%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 비율은 15%였다.
- 대체로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는 국민이 2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사회가 가족애, 가족 유대감이 약한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전반적 가족 관계 만족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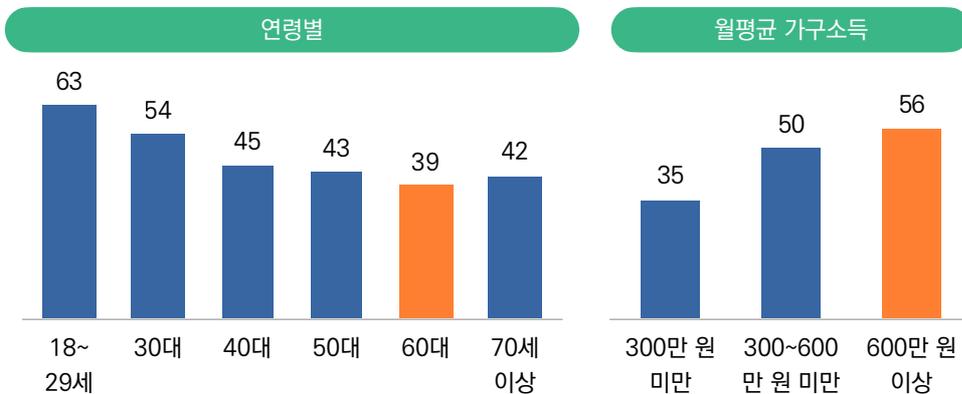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가족인식조사: 가족 관계 만족도, 자주 만나는 가족, 2024.07.1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4.18.~22.)

## 소득 수준 높을수록 가족 관계 만족도 높아

- 응답자 특성별로 가족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을 살펴본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떨어져 60대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39%)를 보였다.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가족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컸다.

[그림] 연령/소득별 전반적 가족 관계 만족도 (일반 국민,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가족인식조사: 가족 관계 만족도, 자주 만나는 가족, 2024.07.1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4.18.~22.)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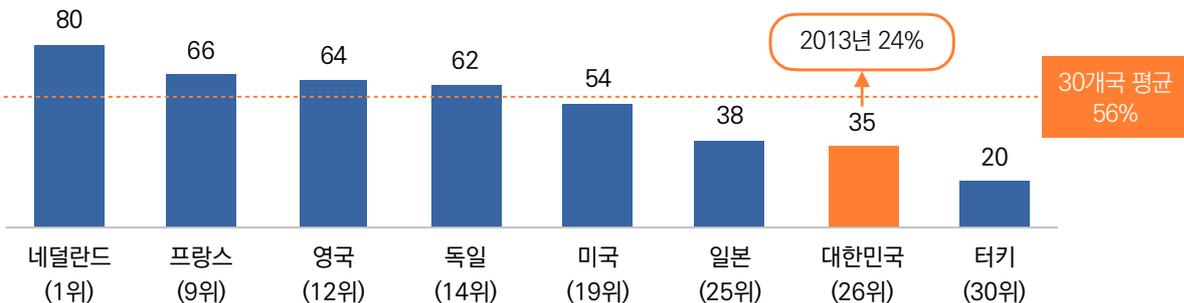


## [동성 가족에 관한 인식]

# 한국의 동성커플 허용 찬성,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

- 최근 대법원의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교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판결은 동성애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등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은 동성 결합 가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30개국)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 글로벌 조사기관인 Ipso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성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에 한국(26위)은 35%가 '그렇다'고 응답해 30개국 중 26위로 전체 평균 56%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동성커플 결혼 허용 찬성 의견은 11%p나 크게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그림]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인식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비율, 30개국 국제조사, 2023, %)



※출처 : Ipsos, 'LGBT+ PRIDE 2023', 2023.06.01. (30개국 16~74세 22,514명, 온라인조사, 2023.02.17.~03.03.)

표본수 1,000명: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태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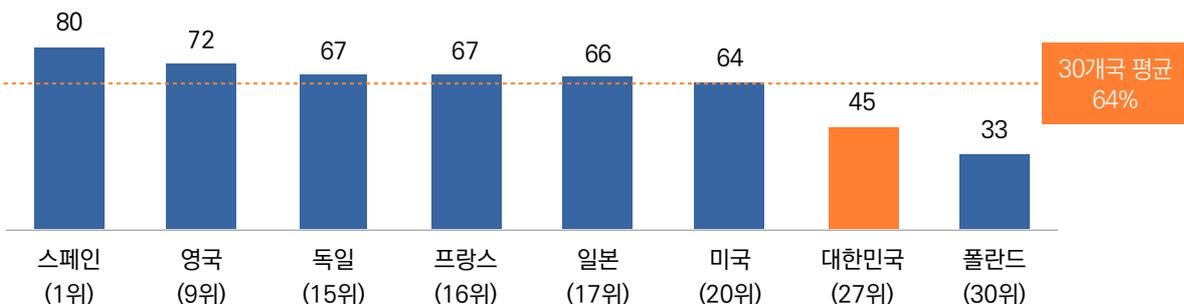
표본수 500명: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아일랜드 공화국,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터키

Note) 전체 보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함, 일종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은 허용되지 않아야 함, 확실하지 않다, 결혼 및 어떤 종류의 법적 인정도 받으면 안 됨

## 우리 국민 45%, 동성커플도 자녀 입양 권리 가질 수 있다!

-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입양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데에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동의한다'는 비율은 30개국 평균 64%로 응답자 3명 중 2명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 권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 45%로 나타나, 30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비율상으로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 권리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앞서서의 두가지 항목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동성애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 권리 인식 ('매우+약간 동의' 비율\*, 30개국 국제조사, %)



※출처 : Ipsos, 'LGBT+ PRIDE 2023', 2023.06.01. (30개국 16~74세 22,514명, 온라인조사, 2023.02.17.~03.03.)

표본수 1,000명: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태국, 미국

표본수 500명: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아일랜드 공화국,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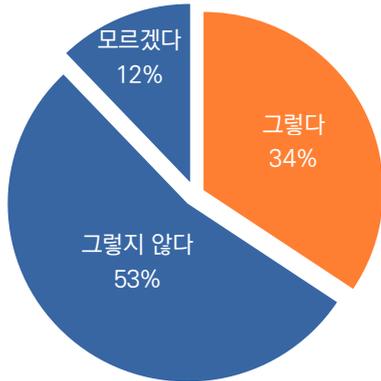
\*5점 척도

## 우리 국민 3명 중 1명, 동성 부부도 자녀 잘 키울 수 있다!

- 그렇다면 동성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최근 발표된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 부부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53%로 우세하나, 동의하는 비율도 34%로 적지 않았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꼴로 '동성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인 셈이다.

[그림] 동성 부부의 자녀 양육 인식\* (2024, 일반 국민)

동성 부부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 2024.0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4.18.~04.22.)

\*5점 척도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1호 \(2024년 7월 3주\)](#)

- 경제 전망, 최저임금 등

## 사회 일반

[노인과 젊은이, 나이에 대한 인식-WIN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4.7.17.

[2024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및 '펫팸\(Pet+family\)족'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7.17.

[\[삶-특집\]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820만원...국민한테는 왜 안주나"](#)

연합뉴스\_2024.7.22.

[\[단독\] 살인·살인미수 5건 중 1건, 젠더폭력이었다](#)

한겨레\_2024.7.18.

[교사들 99%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 필요"](#)

연합뉴스\_2024.7.16.

[북한이탈주민 59% "명칭 변경해야...부정적 인식 있어서"](#)

연합뉴스\_2024.7.12.

[CNN "한국 편의점 5만개,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아"](#)

조선일보\_2024.7.20.

[노후 빈곤 막는 절대 무기 '3층 연금' 쌓아라](#)

조선일보\_2024.7.22.

["배우자 연봉 최소 '이 정도' 원해"...2030 직장인에 들었더니](#)

동아일보\_2024.7.17.

[금일이 금요일? 중식은 중국음식? 문해력 키우는 책 쏟아진다](#)

동아일보\_2024.7.17.

## 청년 · 청소년

[\[단독\]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 62%, 연소득 1억 넘는 집](#)

중앙일보\_2024.7.16.

[청년들 '취업 3수'는 기본... 첫 직장 58%가 월급 200만원 안돼](#)

조선일보\_2024.7.22.

["다들 놀아요, 그게 맘편해"...일도 구직도 포기한 대졸 백수 무려 400만명](#)

매일경제\_2024.7.21.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더 못값아요'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내 최고...저축銀 10%](#)

연합뉴스\_2024.7.22.

[공무원 선호 감소에 공시생 역대 최소...일반기업 취준에 첫 역전](#)

연합뉴스\_2024.7.16.

[6070 돼도 가족 생계 짊어져... '정년 후 계속 고용' 기업 증가](#)

조선일보\_2024.7.18.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피해 경험률 44.5%→32.0% 성과](#)

연합뉴스\_2024.7.15.

["좋은 일자리·일가정 양립 없는 지역, 젊은 여성 빠져나간다"](#)

연합뉴스\_2024.7.17.

[인재 끌어온 독일 '그린카드'...한국, 베트남·인도 노려볼만 \[엑시트 코리아\]](#)

중앙일보\_2024.7.17.

[여름휴가 평균 3.7일... 기업 규모 클수록 길어](#)

동아일보\_2024.7.15.

## 건강

["자전거 출퇴근, 조기사망 위험 47% 낮춰"...17년 추적관찰 결과](#)

동아일보\_2024.7.19.

## 기독교 · 종교

[미혼 남녀 10명 중 7명 이상 "종교 없는 상대 선호"](#)

국민일보\_2024.7.22.

## 기획기사 : [인생 시계 바꾸는 '지각사회'], 조선일보

[① 40대 차장이 청첩장, 50대 부장이 육아휴직... 인생시계 늦춰진다 \\_2024.7.12.](#)

[② 60대 재취업, 70대 '황혼육아'... 은퇴 나이에도 등골 험다 \\_2024.7.13.](#)

[③ 70대 30%가 일한다... 증가폭, 60대 제치고 첫 1위 \\_2024.7.15.](#)

[④ 20대 81%가 부모에 얹혀산다... '캥거루족' OECD 1위 \\_2024.7.17.](#)

[⑤ 英·호주 "60대는 새로운 40대"... 日 "노년 정의 75세로" \\_2024.7.18.](#)

# 후원

##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연구소, AIF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 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시니어 목회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회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 참여방법 : 신청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서 제출
- 본 발표회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넘버즈 구독자 모니터링단 N-멤버스 1기 모집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위클리 리포트 '넘버즈'를 함께 발전시키고 보완할 구독자 모니터링단 'N-멤버스 (Numbers Monitoring Members)'를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정기적으로 넘버즈 모니터링이 가능한 목회자
- 모집 기간 : 2024년 7월 16일(화) ~ 7월 28일(주일)
- 모집 인원 : 0명
- 주요 활동 : 넘버즈 평가 및 피드백 (월 1회), 온라인 간담회 (분기별 1회)
- 활동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목회데이터연구소 발간 서적 및 주요보고서 증정
- 활동 기간 : 2024년 7월~12월 (6개월 간)
- 신청 방법 : 모니터링단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서 양식 제출
- 결과 발표 : 2024년 7월 30일, 선정자 개별 연락
- 문 의 :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모니터링단 신청' 링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